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2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2.(수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
담당과장	신용민 과장 (044-203-4260)	담 당 자	손민경 사무관 (044-203-4269)

'21년은 글로벌 시장에서 K-배터리의 활약이 돋보인 한해

- K-배터리 기업들, 미국내 신규투자 석권 -
- K-배터리 소재기업들, 글로벌 Top 10에 안착 -

① 배터리 기 업	**전기차 시장이 태동 단계인 미국 : 신규 설비투자 석권** **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EU : 압도적 판매 점유율 유지** * '21년 전기차 시장 침투율(SNE) : EU 14%, 중국 11%, 미국 4%

□ **미국**의 경우, **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**

○ 지난해말 美DOE(에너지부, Department of Energy)**의 발표**에 따르면 '25년까지 미국내 건설 예정인 **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국내 3사**(LG에너지솔루션, SK온, 삼성SDI) 관련 설비로 확인됨

【 '25년까지 미국내 건설예정 배터리 설비 (美 에너지부, '21.12.20 발표) **】**

	기 업	지 역	예상 가동시점
1	포드 & SK	테네시	2025
2		켄터키	2025
3		켄터키	2026
4	GM & LG	오하이오	2022
5	GM & LG	테네시	2023
6		미정	미정
7		미정	미정
8	SK	조지아	2022
9		조지아	2023
10	스텔란티스 & LG	미정	2024
11	스텔란티스 & SDI	미정	2025
12	도요타	노스케롤라이나	2025
13	폭스바겐	테네시	미정

* 특히 우리기업의 **11건 중 8건이**(1, 2, 3, 5, 6, 7, 10, 11번) **지난해 투자를 발표**

○ 현재 미국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**미국 전체 생산설비의 10.3%에 불과***하나, 상기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'25년까지 **70%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**될 전망(한국전지산업협회)

* '21년 미국에서 **가동중인 배터리 생산 설비의 83%를 파나소닉(테슬라)가 차지**

□ **유럽**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**압도적 시장 점유율 유지중**

○ EU 지역은 '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*로 **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**하고 있음

* '21년 **EU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14%**로, 4%대인 **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보급 확대**

- EU내 배터리 생산설비(Capa) 중 **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.2%**이며(한국전지산업협회), **지난해**('21.1.~11월) **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.4%***(SNE)

* 판매 점유율은 **전기차 탑재량 기준**이며, '20년 한해의 68.7%보다 소폭 상승

○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**'25년까지 2배로 확대할**(99.7→204.1GWh) **계획**

□ 다만, **가장 규모가 큰 중국**에서는 중국 **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% 이상을 점유**하고 있어, **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EU·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**(점유율 10% 내외)

○ 그러나 **중국을 제외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**은 **우리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성**하고 있고 ('21.1~11월 중국제외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판매량 점유율 : **52.0%**, SNE),

○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**'25년까지 EU,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**될 것으로 전망

* 설비 투자계획 확정,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스펙 협의 및 성능 테스트, 양산능력 확보 등에 3~5년이 소요되므로, **'25년까지 배터리 증설계획은 상당부분 既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**

② 배터리 소재기업	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

□ ‘17년(시장 초기) 대비 ’20년 배터리 **4대 소재**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액, 분리막) **기업들의 매출액은 2~8배 증가**했으며, 참고로 같은 기간 **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.5배 증가**

* **4대 소재 기업의 매출액 증가**(‘17→’20년) : (양극재) 에코프로비엠 2.95배, (음극재) 포스코케미칼 4.79배, (전해액) 엔켐 7.5배, (분리막) SKIET 2.14배

○ 이들은 **배터리 3사 협력, R&D 지원**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, ‘21년 매출액은 **’20년 대비 20%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**됨

□ ‘20년 기준, **6개의 국내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Top10안에 진입**

【 4대 핵심소재 관련 우리기업 순위 (야노 경제연구소, ‘21.9 발표) **】**

소 재	기업명	‘17년 순위	‘20년 순위	글로벌 공급량 증가 (‘17년 대비 ‘20년)
양극재	에코프로비엠	**10위권 밖**	**6위**	**3.15배**(241→759.6백만불)
음극재	포스코케미칼	**9위**	**6위**	**3.17배**(48.6→154.3백만불)
전해액	엔켐	**10위권 밖**	**6위**	**7.89배**(17.2→135.7백만불)
	솔브레인	**10위**	**8위**	**1.55배**(52.7→81.7백만불)
분리막	SKIET	**4위**	**4위**	**1.66배**(229.8→381.6백만불)
	더블유스코프	**9위**	**6위**	**2.03배**(85.4→173백만불)

③ 공급망	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

□ **(수산화 리튬)** ①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, **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·칠레·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 추진중**

② **‘25년 국산화율 37%를 목표로** 국내 설비투자(포스코 7만톤, 에코프로 2.6만톤)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

- **(포스코)**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,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’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 (7만톤은 ‘20년 수입량의 1.9배 규모)
- **(에코프로)** 포항에 ‘탄산리튬→수산화리튬 전환공장’을 준공하고, ’23년까지 2.6만톤의 생산능력 확보
- **(사용후 배터리 재활용)** 실증센터 구축,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‘25년 1.7만톤, ’30년 2.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

□ **(니켈, 코발트)**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은 **광산기업 지분투자, 장기구매 계약**을 통해 니켈/코발트 물량을 확보중

기업	국 가	주요 내용	예상 확보량
LGES	인니	니켈광산 합작투자	현재 논의 중
	호주	QPM사 지분투자(’21.6, 7.5%)	’24~’30년간 年 니켈 7천톤, 코발트 7백톤
	호주	오스트레일리안마인즈社 장기구매 계약(’21.8)	’24~’30년간 年 니켈 11.8천톤, 코발트 1.3천톤
	중국	그레이트파워社 지분투자 (’21.9, 4.8%)	’23~’29년간 年 니켈 3.3천톤
포스코	호주	RNO社 광산 지분투자(’21.5, 30%)	’24~’39년간 年 니켈 7.5천톤
SK온	스위스	글렌코어社 장기구매계약(’19.12)	’20~’25년간 年 코발트 6천톤
LX 인터내셔널	호주	코발트블루社 지분투자(’18.3)	생산량 미정(현재 시제품 생산중)

□ **(전구체)** 양극재 기업은(포스코케미칼, LG화학, 에코프로GEM, 이앤드디 등) **국내 전구체 생산공장 설비를 ‘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 추진** (국내 Capa : **‘20년 4.7만톤 → ’25년 25.7만톤**)

□ **(흑 연)** ①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‘23년까지 **1.6만톤의 생산설비를 구축** 예정(1.6만톤은 **’20년 수입량의 1.6배 수준**)

* 포스코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콜타르를 가공한 침상코크스로 생산 예정

②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**탄자니아 광산**(블랙록마이닝) **지분 인수로** ’24년부터 3.5만톤 확보 계획(3.5만톤은 **’20년 수입량의 1.1배 수준**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(☎ 044-203-42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